

광주경총, 박문호 박사 금요조찬포럼

“인공지능 시대, 매일 새로운 길 찾아 나서야”

박문호 박사가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광주경영
자총협회 금요조찬포럼에서 인공지능 시대 속 리
더십에 대해 강조했다.

공의사단법인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 이사
장인 박문호 박사는 지난 16일 출리레이인 광주
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09회 금요
조찬포럼에서 ‘미래경영과 AI’ 주제로 강연에
나서 “경영인들 역시 항상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세계를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박문호 박사는 AI 시대 경영자
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놀라움’을 꼽았다. 그는
“새로운 것을 보고 더 이상 놀라지 않는 순간, 그
사람과 조직은 이미 멈춘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경영은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 빠른 선택만 반복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
한 상황 속에서 더욱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아야
한다”며 “삶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예측 불
가능한 삶을 살면서 가지 않아 본 길을 매일 찾아
나서야 한다”고 진취적 삶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미래경영과 AI’ 강연…진취적 삶의 중요성 강조

경영자들 중요한 자원, 기술이 아닌 ‘사고와 태도’

이어 “AI는 계산을 대신해 줄 수 있지만, 무엇을
묻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하는 일은 여전히 인
간의 몫”이라며 “앞으로의 경영자는 정답을 제시
하는 사람이나, 방향을 질문하는 사람이 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박사는 AI를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았다.
그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AI의 핵심은 결
국 계산이며, 그 계산은 행렬 연산이라는 단 하나
의 작업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인간이 원인을 주면 결과를 예측하는 데는 능숙
하지만, 이미 나타난 결과를 놓고 그 복합적인 원
인을 찾아내는 데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반면, AI
는 이 방대한 원인 조합을 빠르게 계산해낼 수 있
다는 설명이다.

박 박사는 “인간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묻는 순간부터 계산량이 폭증해 사고가 멈추지
만, AI는 바로 그 지점에서 힘을 발휘한다”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AI는 그저 유행어에 불
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고 구조의 차이는 경영 현장에서도 그
대로 드러난다. 매출 감소, 인력 이탈, 조직의 침
체와 같은 결과는 눈에 보이지만, 그 원인이 무엇
인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일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박 박사는 “대부분의 경영자는 결과
를 설명하는 데 그치고, 원인을 정의하지 못한 채
대책부터 세우려 한다”며 “AI 시대의 경영자는
답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설계하는 사람
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
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고 첨언했다.

경영 판단에서 간과되기 쉬운 요소로는 ‘에너
지’를 꼽았다.

박 박사는 주식과 부동산 사례를 들며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
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했는지를 계산해야 한
다”며 “단기 수익은 눈에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소모된 집중력과 사고 자원은 회계 장부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돈이나 시
간이 아니라 사고에너지”라며 “무엇에 에너지를
쓰느냐가 기업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박사는 AI를 기술의 문제라
아닌 사고와 태도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

다. 박문호 박사는 “경영자에게 익숙한 판단 방식
자체를 돌아보도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무엇
을 더 배울 것인가보다. 무엇을 다시 정의해야 하
는가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지난 16일 출리레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
협회 제1709회 금요조찬포럼에서 박문호 박사가 ‘미래경
영과 AI’를 주제로 강연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타이어 구매 고객에게 상품권·순금코인 쏜다”

금호타이어, 마제스티 X 등 새해맞이 기념 이벤트

금호타이어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9일
부터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금호타이어의 승용 및
SUV 차량용 타이어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월 21일까지 사은품 증정 혜택
을 제공하며,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호타
이어 대리점(일부 매장 제외)에서 참여 가능
하다.

행사 제품은 프리미엄 ‘마제스티 X 솔루
스’, 프리미엄 ‘마제스티9 솔루스’, 프리미
엄 ‘크루Zen HP71’이 대상이다.

행사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GS칼텍스
X이마트 결합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또 금호타이어 승용 및 SUV 제품 2개 이
상 구매한 뒤 네이버 리뷰를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순금코인, 기프티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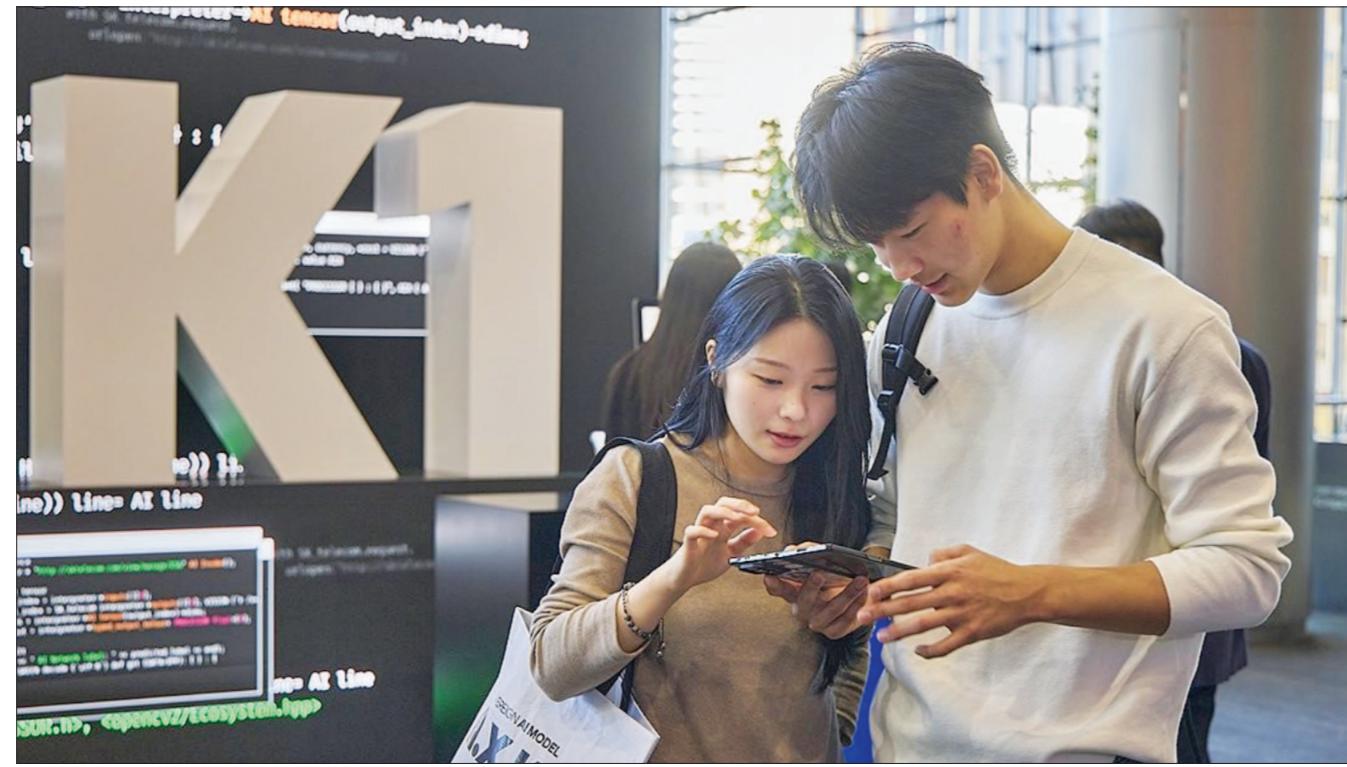
등의 다양한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호타이어
홈페이지 및 타이어프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마제스티 X는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라인업인 ‘마제스티 솔루스(Majesty
SOLUS)’의 명맥을 잇는 최상위 럭셔리
타이어로, 승차감과 제동 성능, 극대화를
위해 고분산 정밀 실리카가 적용된 컴파운
드를 사용했다.

특히 주행 성능, 편의성, 핸들링, 마모
성능, 눈길 제동력 등을 기준 제품 대비 전
반적으로 대폭 향상시켰으며, 타이어 흡에
서 발생하는 소음을 디플(duimple) 설계로
분산시키는 ‘페린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
해 한층 향상된 정숙성을 제공한다.

금호타이어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기
술 혁신과 마케팅을 통해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방문자들이 SK텔레콤 A.X K1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제공=SK텔레콤

SKT ‘국가대표 AI’ 2단계 진출 “멀티모달 확장”

중국어 등 5개 국어 학습 확대

정부가 주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에 진출한 SK텔레콤
정예팀이 향후 평가 과정에서 멀티모달 기
능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정예팀이 개발한 ‘A.X K1
(에이디엑스 케이원)’은 국내 최초로 매
개변수 5000억개를 넘어선 519B급 초기
대 AI 모델이다. 단순히 규모만 키운 모델
이 아니라, 고난도 주론 영역에서 경쟁력

을 입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 하반기 이후에는 음성과 영상 데이터
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테스트 중심 AI를 넘어, 이미지·음성·영

상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AI로 진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모델 성능 고도화를 위한 준비도 병행한
다. 학습 데이터 규모를 1단계보다 늘리
고, 학습 언어도 한국어·영어·중국어·일
본어·스페인어 등 5개 국어로 확대해 범용
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구진 구성도 확대됐다. 기존 참여 8개

기관에 더해 KAIST 인공지능대학원 서민
준 교수 연구실과 서울대 수리과학부 서인
석 교수 연구실이 합류했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 AX,
SK브로드밴드 등 SK그룹 계열사와 한국
고등교육재단, 최종현학술원 등 20여개

기관은 단계적으로 정예팀 모델을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전날 진행된 1차 평가
에서 5개 정예팀 중 통과한 3개 팀에 포함
됐다. 특히 SK텔레콤은 NIA 벤치마크 평
가에서는 수학, 지식, 장문 이해, 신뢰성,
안전성 등 항목을 종합 평가해 10점 만점
기준 9.2점을 기록했다. LG AI연구원과
동일한 점수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남TP, 지역연고산업 ‘으뜸’…국비 15억 확보

해남군 ‘지방소멸대응 뿌리·조선산업 활성화’ 최고 등급

전남테크노파크는 2026년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에서 ‘해남군 지방
소멸대응 뿌리·조선산업 활성화’ 지원사

밝혔다.

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에서 ‘해남군 지방
소멸대응 뿌리·조선산업 활성화 지원사
업’이 최고등급(1등급)으로 최종 선정돼
내년까지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
업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
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연계·협업을 통해 지역연고산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활성화해 지방소멸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중앙부처와 전남
도, 해남군의 지원을 통해 주관기관인 전
남테크노파크와 참여기관인 한국생산기
술연구원, 순천대학교가 협력해 올해부터
2년간 총 21억4400만원 규모로 해남군 뿌
리·조선산업 사업다각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윤용성 기자

